

# ‘임기영 복귀’ KIA 선발진 재구성

어깨 재활 마치고 이번주부터 선발진에 가세 예상돼  
좌완 2명 우완 2명 사이드암 1명...4~5선발 약점 해소



개막 엔트리에서 빠진 사이드암 임기영이 어깨를 재활을 마치고 다음주부터 선발진에 가세할 것으로 보인다.  
투입 시기는 결정되지 않았지만 주중 LG와의 광주 3연전과 주말 두산과의 잠실 3연전 가운데 한 경기

이다. 임기영이 복귀하면서 KIA의 선발진도 세팅이 다시 되었다.  
임기영은 어깨통증으로 개막 엔트리에서 빠지면서 혈거위진 선발진을 구성했다.  
헤터 노에시, 양현종, 팻딘의 3선발진에 이어 이민우와 정용운이

4~5선발을 맡았다. 이민우와 정용운은 각각 첫 경기는 무난한 출발을 했다. 그러나 SK와의 인천경기에서 나란히 부진했다.  
결국 한승혁이 2군에서 올라와 한 자리를 차지했고 두 선수는 1+1로 지난 11일 대전 한화전에 나섰지

만 역시 제물을 못했다. 정용운이 엔트리에서 빠졌고 임기영은 퓨처스리그에서 실전에 돌입했다. 2경기에서 선발투수로 등판해 복귀 준비를 마쳤다. 가장 최근에는 79개의 볼을 던졌다.

임기영이 복귀하면 KIA 선발진도 재구성 된다. 헤터, 양현종, 팻딘, 한승혁, 임기영까지 5명의 선발진으로 가세하고 임기영의 복귀로 새로운 선발진에 대한 기대감이 높다. 좌완 2명, 우완 2명, 사이드암 1명으로 구성도 적당하다. 4~5선발의 약점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받고 있다.

관건은 돌아온 임기영의 구위이다. 임기영은 작년 시즌 데뷔 이후 가장 많은 볼을 던졌다. 정규시즌은 물론 한국시리즈(1승)와 아시아프로 야구 챔피언십까지 등판하면서 어깨에 무리가 왔다. 어깨 통증에서 완전한 회복을 실현해서 임종을 해야 된다. 특유의 체인지업이 통할 것인지도 점검받는다.

벌써 두번이나 부진한 투구를 하고 있는 헤터의 회복 여부도 변수이다. 3월 24일 KT와의 개막전에서 5%이닝 9타점 4삼진, 4월 12일 한화전에 2이닝 7실점으로 부진했다. 피인타율이 3월5%로, 평균자책점도 7.08에 이른다.

헤터가 회복을 해야 투실한 5선발진을 가동할 수 있다. 결국 KIA의 완전체 선발진 구축 여부는 두 투수의 어깨에 달려있는 셈이다.



한국체육대학교 심석희(맨 앞)가 15일 오후 서울 양천구 목동 실내빙상장에서 열린 'KB금융그룹 제33회 전국 남녀 쇼트트랙 스피드 스케이팅 선수권대회' 결 2018/2019 쇼트트랙 국가대표 2차 선발대회' 여자 1000m 예선에서 질주를 하고 있다.

## 쇼트트랙 심석희·임효준 2차 대표선발전 종합 우승

한국 여자 쇼트트랙의 '쌍두마차' 중 한 명인 심석희(21·한국체대)가 올림피아드컵 어렵다는 국가대표 선발전에서 전 종목 석권했다.

심석희는 15일 목동 실내빙상장에서 열린 제33회 전국선수권대회 결 2018~2019시즌 쇼트트랙 국가대표 2차 선발대회 여자 1000m 결승에서 1분32초962의 기록으로 가장 먼저 결승선을 통과했다.

여자 1000m 결승에서는 노도희(22·화성시청)가 1분32초986으로 2위에 올랐고 신세봄(25·스포츠타운)이 1분33초112로 뒤를 이었다.

지난 11~12일 열린 1차 선발대회에서 전 종목(500m·1000m·1500m·3000m 슈퍼파이널)을 석권하며 종합 우승을 차지한 심석희는 2차 선발대회 첫날인 전날 500m, 1500m에서 1위에 오른 데 이어 1000m까지 석권했다.

1000m 1위로 일찌감치 종합 우승을 확정지은 심석희는 500m·1000m·1500m 합산 성적 상위 8명이 나서는 3000m 슈퍼파이널에서 크게 무리하지 않는 모습이였다. 여유있게 레이스를 펼친 심석희는 5분42초730의 기록으로 6위에 자리했다.

심석희는 종목별 점수 105점을 기록해 1, 2차 대회 종합 우승을 휩쓸었다.

심석희는 1차 선발대회 우승으로 1시간 30여분만에 이뤄졌다"며 "그동안 어린이를 비롯한 관중들은 야외에서 미세먼지에 그대로 노출돼 있었다"고 밝혔다.

또 다른 팬은 "경기를 앞두고 선수들이 운동장에 모습을 보여 시작 할 줄 알았는데 5분도 되지 않아 철수했고 더그아웃에서도 보이지 않았다"며 "그런데 관중들은 취소 결정이 내려지기 전까지 관중석에 남아있었다. KBO의 뒤늦은 판단이 아쉽다"고 지적했다.

심석희의 압도적인 우승은 예견됐던 일이다. 한국 여자 쇼트트랙의 에이스 최민정(20·성남시청)이 지난달 세계선수권대회에서 종합 우승을 차지해 자동으로 대표팀에 선발돼 국내 선발전에서는 뚜렷한 적수가 없었다.

여자 3000m 슈퍼파이널에서는 노아름(27·전리북도청)이 5분42초45로 1위에, 김건희(18·만덕고)가 5분42초070으로 2위에 올랐다. 3위는 5분42초190을 기록한 노도희에 돌아갔다.

쇼트트랙 국가대표 선발대회는 4개 종목별(500m·1000m·1500m·1500m 슈퍼파이널)로 1위 34점, 2위 21점, 3위 13점 등 순위 점수를 매긴 뒤 이를 합산해 종합 순위를 결정했다.

빙상연맹은 종합 순위 1~50위에 1점 차이로 종합 순위 점수를 부여한 뒤 1, 2차 대회 종합 순위 점수를 합산해 대표 선수를 선발했다.

합산 순위 상위 7명은 2018~2019시즌 국가대표로 된다.

올해 세계선수권대회 종합 우승을 차지한 최민정과 남자부 3위로 임성한 황대현(19·한국체대)은 자동으로 대표팀에 뽑혔다.

여자부에서는 1·2차 선발대회 함께 종합 순위 점수 95점을 기록한 김지유(19·포항공대)가 2위에 올랐다.

1차 선발대회에서 종목별 점수 68점을 얻어 2위였던 김지유는 2차 대회에서 37점으로 5위에 올라 종합 순위 점수 46점을 추가했다.

김건희가 종합 순위 점수 92점으로 3위에 올라 대표팀에 승선했다. 1차 선발대회에서 종목별 점수 15점으로 6위에 머물렀던 김건희는 2차 대회에서 종목별 점수 39점으로 4위를 차지했다.

평창올림픽 국가대표 김예진(19·한국체대)이 1·2차 선발대회 합산 종합 순위 4위로 태극마크를 달았고 최지현(24·성남시청), 노아름, 신세봄이 대표팀에 이름을 올렸다.

남자부에서는 평창올림픽 남자 1500m 금메달리스트 임효준(22·한국체대)이 종목별 점수 82점을 획득해 종합 우승을 차지했다.

1차 선발대회에서 전 종목을 석권해 종합 우승을 차지한 임효준은 2차 대회에서도 우승, 종합 순위 점수 100점으로 1위를 차지해 대표팀에 승선했다.

전날 남자 1500m에서 실격당했던 임효준은 500m에서 우승했고 이날 1000m 결승에서 1분35초871의 기록으로 1위에 올랐다.

임효준은 이어 열린 3000m 슈퍼파이널에서는 5분55초989로 3위를 차지했다.

남자 1000m 결승에서는 1분35초976을 기록한 홍경환(19·한국체대)이 2위에 자리했고, 이준서(18·신목고)가 1분36초53으로 3위에 올랐다.

이어 벌어진 남자 3000m 슈퍼파이널에서 이준서가 5분55초641로 우승했고 베테랑 곽윤기(29·고양시청)가 5분55초847로 뒤를 이었다.

1·2차 선발대회 함께 종합 순위 2위에 오른 것은 신에 이준서다. 1차 선발대회에서 종목별 점수 37점으로 3위를 차지한 이준서는 2차 선발대회에서 종목별 점수 68점으로 2위에 올라 종합 순위 점수 97점을 기록했다.

1차 선발대회에서 종목별 점수 44점으로 2위였던 홍경환이 2차 선발대회에서 38점으로 4위를 차지, 종합 순위 점수 96점으로 3위에 올라 태극마크를 달았다.

1차 선발대회에서 4위(종목별 점수 34점), 2차 선발대회에서 3위(47점)에 오른 곽윤기도 4위로 대표팀에 합류했다.

이외에 김건우(20·한국체대)와 박지원(22·단국대), 박세영(25·화성시청)이 대표팀 막차를 탔다.

## 미세먼지 덮친 광주야구장, 선수는 대피·관중은 노출..KBO 늦은 판단



15일 오후 광주 북구 광주-기아챔피언스필드에서 2018프로야구 KIA 타이거즈 대 롯데 자이언츠의 경기가 열리기 앞서 광주지역에 미세먼지 경보가 발령돼 경기 취소 여부가 논의되고 있는 가운데 선수단은 실내 라커룸으로 철수했지만 관중들은 야외에 노출돼 있다. 경기는 30여분만에 취소됐다

광주에 내려진 '미세먼지 경보'로 15일 프로야구 경기가 취소된 가운데 결정을 하는 동안 선수단은 실내로 대피해 있는 반면 관중들은 야외에 노출돼 KBO의 뒤늦은 판단이 아쉽다는 지적이다.  
이날 오후 2시 광주 북구 광주-기아챔피언스필드에서는 2018프로

야구 KIA 타이거즈 대 롯데 자이언츠의 경기가 예정돼 있었다.  
어린이를 동반한 가족, 연인, 야구 팬 1만5000여명은 주말을 맞아 경기를 보기 위해 수시간 전부터 경기장 밖에서 대기했고 시작 1시간여를 앞두고 입장했다.  
이어 경기 시작 5분여를 앞두고

대형 전광판과 방송을 통해 '미세먼지로 인해 경기 진행 여부를 판단하고 있다'는 안내 문구와 방송이 있었다. 운동장에서 몸을 풀던 야구 선수들은 곧바로 실내 라커룸으로 대피했다.  
반면 관중들은 야외에 그대로 노출된 채 취소 결정이 될 때가

지 기다려야 했다.  
30여분만에 취소 결정이 내려지자 허탈한 관중들은 아쉬를 하며 KBO의 미숙한 처리를 비난했다.

KBO 프로야구 경기 규정에는 "경기개시 예정 시간에 강풍, 폭염, 안개, 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돼 있을 경우 해당 경기 운영위원이 지역 기상청(기상대) 확인 후 심판위원 및 경기관리인과 협의해 구장 상태에 따라 취소 여부를 결정한다"고 규정돼 있다.

실제 광주지역에는 이날 낮 12시에 '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됐고 경기시작 1시간여를 앞두고 '경보'로 격상됐다.

KIA의 한 팬은 "오후 1시에 미세먼지 경보가 발효됐는데 취소는 1시간 30여분만에 이뤄졌다"며 "그동안 어린이를 비롯한 관중들은 야외에서 미세먼지에 그대로 노출돼 있었다"고 밝혔다.

또 다른 팬은 "경기를 앞두고 선수들이 운동장에 모습을 보여 시작 할 줄 알았는데 5분도 되지 않아 철수했고 더그아웃에서도 보이지 않았다"며 "그런데 관중들은 취소 결정이 내려지기 전까지 관중석에 남아있었다. KBO의 뒤늦은 판단이 아쉽다"고 지적했다.

## 류현진, 내일 샌디에이고 상대로 2승 사냥

류현진(31·LA 다저스)이 17일(한국시간) 샌디에이고 파드리스를 상대로 시즌 세 번째 등판에 나선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지역 신문 '오렌지 카운티 레지스터'의 빌 플럼릿 기사는 15일 데이브 로버츠 다저스 감독의 말을 인용,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다저스의 17~19일 샌디에이고 원정 3연전 선발 로테이션을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류현진은 17일 오전 11시 10분 캘리포니아주 샌디에이고의 펠코 파크에서 열리는 3연전 첫 경기에 선발 등판한다. 알렉스 우드, 마에다 겐타가 18, 19일 선발로 나선다.

류현진은 앞선 두 차례 선발 등판에서 패배없이 1승, 평균자책점

2.79를 기록했다.  
류현진은 시즌 첫 선발 등판이었던 지난 3일 애리조나 다이아몬드백스전에서 3%이닝 5피안타 2탈삼진 5볼넷 3실점으로 부진했다.

이후 우천 취소와 우드의 식중독 증세 등으로 두 차례나 선발 등판 일정이 조정됐고 류현진은 7일이나 휴식을 취해야 했다.  
불규칙한 일정 속에서도 류현진은 11일 오�클랜드 애슬레틱스전 6이닝 동안 8개의 삼진을 잡아내며 1피안타 1볼넷 무실점으로 패투를 선보이며 시즌 첫 승을 일켰다.

류현진은 샌디에이고를 상대로 강한 면모를 자랑했다. 샌디에이고를 상대로 통산 7경기에 선발 등판해 4승 1패 평균자책점 2.57을 기록했다.

## 박인비, '롯데챔피언십' 공동 3위

브룩 헨더슨 우승 통산 6승...지은희·김지현 공동 11위

통산 20승에 도전했던 박인비(30·KB금융그룹)가 퍼팅 난조로 어렵게 공동 3위에 만족해야 했다.  
박인비는 15일(한국시간) 미국 하와이주 오아후섬 코올리나 골프 클럽(파72·6397야드)에서 열린 미 여자지프로골프(LPGA) 투어 '롯데 챔피언십'(총상금 200만 달러) 마지막 날 4라운드에서 버디 4개와 보기 4개를 맞바꾸며 이븐파를 적어냈다.

최종합계 7언더파 281타를 기록한 평산산(중국), 에리아 쥘타누간(태국)과 함께 공동 3위로 대회를 마쳤다. 브룩 헨더슨(캐나다·12언더파 276타)이 선두를 지켜내며 우

승을 거머쥐었다.

2015년 데뷔한 헨더슨은 지난해 9월 '뉴질랜드 여자오픈'에서 우승한 뒤 13개 대회 만에 정상에 올랐다. 통산 6승째다.

이저하라 무노스(스페인)는 최종일 버디만 5개를 낚으며 함께 8언더파 280타로 준우승을 차지했다. 첫날 선두에 올랐던 세계랭킹 1위 평산산은 나머지 사흘 동안 2타를 쏴이는데 그치며 아쉬움을 남겼다.

LPGA 투어 말년시 지은희(32·한화큐셀)는 1타를 줄여 3언더파 공동 11위에 올라 다시금 탄력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뉴시스



湖南新聞

전화 062/224-5800  
팩스 062/222-5548